

배포 일시	2022. 10. 6.(목)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과 장 박기범 (044-201-3775)
		담당자	사무관 김성자 (044-201-3779)
보도일시	2022년 10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옥 학생공모전 대상에 ‘닭고 담다’ 수상

-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발표... 총 554점 접수작4개 부문 중 54점 선정 -

-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학생공모(계획) 부문은 「닭고 담다」, 사진부문은 「지붕선의 미학」, 영상부문은 「우리의 한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올해 한옥공모전은 4개 부문(준공한옥, 학생공모, 사진, 영상)을 대상으로 총554개의 작품 접수되어 한옥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발표·현장 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2점, 학생공모 부문 16점, 사진부문 28점, 영상부문 8점 등 총 54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고, 준공부문은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및 명패가 수여된다.

《 '22년 시상규모 》

구 분		학생공모(계획) 부문	사진부문	영상부문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000만원(1)	400만원(1)	400만원(1)
특별상(계획부문 내상)		500만원(1)	-	-
본상	금 상	500만원(1)	일반인 150만원(1) 청소년 100만원(1)	150만원(1)
	은 상	300만원(2)	일반인 100만원(2) 청소년 50만원(2)	100만원(2)
	동 상	100만원(3)	일반인 50만원(2) 청소년 25만원(2)	50만원(2)
입 선		상장(8)	상장(17)	상장(2)

* 준공부문 : 올해의 한옥상(1), 한옥공공건축물상(1)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공모 부문은 ‘마음을 품은 한옥’ 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설계안)를 심사하였으며, 준공한옥 부문은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와 설계·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사진·영상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 부문별 대상작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학생공모 부문 대상) ‘답고 답다’ 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 공적인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도서관을 기획하여, 한옥 공간의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공간-마당-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탁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 (사진부문 대상) ‘지붕선의 미학’ 은 한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목이 ‘사진’ 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집’ 이라는 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성과 선택이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영상부문 대상) ‘우리의 한옥’ 은 한옥의 전통과 역사가 현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세련된 촬영과 편집으로 구현하였고, 특히 다양한 촬영 기법과 로케이션에 공을 들여 영상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시상식은 11월 초(잠정)에 건축공간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용산공원에서 개최되는 2022 건축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수상작이 전시(10.6~10.10)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서 “한옥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한옥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누리집 (competition.hanokdb.kr)에서 10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학생공모(계획)부문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계 획 안



작품명 및 심사평

- **작품명** : 「달고, 담다」
- **수상자** : 설윤주, 안문석(명지대학교)
- **심사평**
 - 대상지의 공적인 공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화도서관을 기획하여, 한옥 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마당-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탁월한 작품

○ (특별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계 획 안

INTRO

경양방죽 2

조각을 잇다

SITE ... 경주광역시 용구 역을 남 550미터의 일대

CONCEPT

1. 현대적 전통의 재현

2.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3.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4.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5.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6.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7.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8.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9.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10.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PROGRAM

ISOMETRIC

PLAN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SCENE

경양방죽 전서실

기대 대부

합선 자료실 서가

부원대 서가 대방

SECTION

STRUCTURE

#1 현대식 경복궁도

- 불타원(2017년) 기원 & 보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2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3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4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 불타원 불탑

작품명 및 심사평

- 작품명 : 「조각을 잇다」
- 수상자 : 유이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심사평
 - 과거 광주 시내에 위치해 있던 저수지인 '경양방죽'을 홍보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으로, 다층 한옥으로 구성하면서 한식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공간과 가구 구조 계획이 우수한 작품

○ (금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작품명 및 심사평

- **작품명** : 「공공기와 - 기와로 기억심기」
- **수상자** : 정재훈(서울시립대학교)
- **심사평**
 - 건축물 사이의 중앙마당에 기와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패널을 설치하여 오픈플랫폼을 만들고 '기와언덕'이라고 명명하여, 한옥의 요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 해석 및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

□ 준공부문

○ (올해의 한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구분	작품 사진
<p>올해의 한옥상</p>	 <p>* 복층한옥의 가능성과 도전</p> <p>예맥당은 살림이 도파인 한옥의 온정함과 아름다움의 품위에서 영감을 얻어 왔다. 개인주택이지만, 외부인들은 온정함과 아름다움 있는 복층을 위한 용도에 의해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었다.</p> <p>이러한 영감을 바탕으로, 온정함과 아름다움은 온정함과 아름다움의 일정한 범위에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예맥당은 복층한옥으로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고 있다. 초기부터가 가장 중요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이러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이러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이러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이러한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 영감을 얻어냈다.</p>
	<p>작품명 및 심사평</p> <p>「예맥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평) 외부경관, 골목길, 마당, 내·외부공간의 연계가 내실있게 짜여져 있고, 수직적인 공간의 위계로 나누어진 '층'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공간계획이 우수한 작품 · (위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1 · (수상자)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오브 전재영 건축주 - 정원조, 시공자 - 고진티엔씨 강석목

○ (한옥 공공건축물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구분	작품 사진
----	-------



한옥 공공 건축 물 상

소방서의 기능을 담은 한옥

1. 소방서의 재고

소방서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헬기차, 물탱크차 등 대형 차량이 사용가능 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차고의 확보, Shelter 및 7.5m, 9m의 크기로, 안전으로, 건축적 구조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일체의 불투명 구조

소방서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불투명 구조를 적용하여 밀도, 조망, 물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불투명 양식도 장수명을 가지며, 구멍은 양식대로 구조재질과 색무채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3. 화재의 확산방구

소방관의 대기실 및 체력단련실 등 오랜시간 이용되는 생활공간은 한식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단열의 강화를 위하여 소음차단 구조인 경량벽체와 단열시공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질 수 있었다.



공간으로서의 한옥



STEP 1. 현대소방서를 위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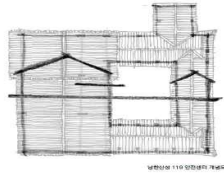
외관이 단순한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 계획적인 초기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투명 구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은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결정적 선택이었다. 한옥을 통한 구조적 특성과 현대적 공간 요소를 적용해 소방서의 기능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STEP 2. 재-사용을 통한 기능, 구조의 적용

소방서의 불투명성의 일관화 및 단조함을 위해 일부분은 지리수준에 생활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기능에 맞게 생활공간은 원래의 지고 생활공간은 단조를 내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재는 필요공간을 위해 공간 전체에 적용하였다.

STEP 3. 재-사이클링을 통한 여유공간

내부에서 재-사이클링을 위한 단조한 구성했다. 생활공간을 위한 여유공간을 통해 생활 질을 높고, 단조함을 넘어 여유공간을 위한 여유공간을 구성했다.




작품명 및 심사평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 (심사평) 전국 유일의 한옥 소방서로서 상징성과 목구조가 내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PTSD실(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작품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39-1
- (수상자)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건축주 - 남한산성 119안전센터, 시공사 - 금세기 종합건설 최영구

□ 사진부문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제목	사진
대상 (장관상)	지붕선의 미학 (대구 육신사) 수상자 : 박양심	

□ 영상부문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제목	영상 사진
대상 (장관상)	우리의 한옥 수상자 : 서영원	